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올해 마지막 '사랑의 헌혈' 행사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따뜻한 나눔의 행렬이 15일 정읍시청 광장에서 이어졌다. 정읍시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과 함께 올해 마지막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고 시민과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더했다. 시는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헌혈 행사를 마련하며 생명 나눔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지난 7월 3분기 행사에서도 수십여 명의 시민과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온누리상품권·영화관람권 등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돼 감사를 표했다. 시는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내 학교·공공기관 등과 꾸준히 협력해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아동보호기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아이들을 학대의 그림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정읍을 중심으로 서남권 일대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자영)은 최근 지역 내 어린이 집과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 교사, 학부모 등 17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아동과 가장 가까이 있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읍·김제·고창·부안 등 서남권 4개 시·군의 어린이 집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시니어클럽의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까지 교육 대상을 넓혀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를 식별하는 방법부터 실질적인 예방·대응 방안까지 심도 있게 다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구절초 꽃축제 안전 이상 무

정부·지자체, 합동 안전점검 위험 요소 사전 차단 총력

가을 대표 축제인 '정읍 구절초 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안전 돌보기'를 들었다. 정읍시는 축제 개막에 앞서 행정안전부·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강도 높은 합동 안전점검을 벌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와 전북도, 정읍시 재난안전과·보건소 등 관계자 7명이 참여했다. 점검반은 이틀에 걸쳐 행사장 주요 동선과 무대시설은 물론, 전기·가스·소방·보건 등 분야별 안전관리 현황을 세밀하게 살폈다. 특히 첫날 현장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이튿날에는 해당 사항의 보완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하루 최대 1만 5000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점검의 초점이 맞춰졌다. 점검반은 교통 통제 계획·식당 위생·응급의료체계 운영 등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배치 상태까지 철저히 살폈다. /정읍=김대환 기자



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경찰, 소방 등 각 분야 전문기관들이 사전에 요구했던 안전 대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됐는지 최종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점검반은 △경찰이 요청한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현황 △소방서 의견을 반영한 '소화기 외부 노출 설치' 여부 △전기 단선·합선 사고를 막기 위한 '일일 점검 계획'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주차·우회·유도 인력 배치 계획'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차 배치 계획'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며 다중 안전망을 갖췄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7일까지 무대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개막식 등 주요 행사 전까지 모든 지적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전 위험요소를 꼼꼼히 살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14~15일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 이룰 것”

심덕섭 고창군수,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14~15일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방문지로는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현장과 성산2길 도시재생 지중화사업 현장을 찾았다.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은 뒷산가1동 철거를 마쳤으며, 터미널 매표소 건물 철거를 앞두고 있다.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도시재생 지중화사업은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고인물박물관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 △고인물 생태공원 조성사

업 △군립미술관 건립사업 △고인물 박물관 모험놀이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고창군은 이들 사업을 통해 세계유산이자 대표 관광자원인 고인물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유적지와 박물관 생태공원, 미술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생태·문화·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벨트를 구축함으로써 고창군 문화관광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휴양, 레포츠, 체험·교육 기능을 두루 갖춘 특색있는 산림휴양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산립레포츠파크 조성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현장을 위촉한 이산면 용계리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5년 제41회 고창군 군민의 장’ 수상자 3명 선정

군, 수상자 김상필 스포츠클럽 지도자 ·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 이명훈 농악보존회장

고창군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제41회 고창군 군민의장’ 수상자로 김상필 김우호, 이명훈씨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상필씨는 고창군스포츠클럽 지도자로, 신승찬 김민지 선수 등 걸출한 배드민턴 선수들을 지도, 육성하며 고창을 배드민턴 명가로 거듭나는데 일조했다. 또 전지훈전팀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데 기여했다. 김우호씨는 전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하고, 어촌뉴딜 사업 등 고창군 핵심 현안사업 선정에 도움을 주며 지역 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김상필



김우호



이명훈

심사 방식이 대폭 변경됐다. 기존에는 5개 분야로 나누어 부문별로 1명씩 총 5명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분야 구분을 없애고 최대 3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심사 방식도 최고 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산출해 상위 3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고창군은 오는 10월29일 ‘제64회 고창군민의날’에 군민의 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5년 부안음식문화대전 성황리 개최

변화하는 음식문화 트렌드 발맞춰 ‘부안의 맛’ 살린 1인 밥상 소개

부안군은 15일 부안 해돋이루 지방정원 일원에서 2025년 부안음식문화대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및 부안군의원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부안 비빔밥 비빔 행사를 진행했으며 군민들과 함께 다양한 향토음식을 맛보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혼자서도 따뜻하고 품격있게 즐길 수 있는 부안의 맛, 1인 밥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총 12개 업소가 참여해 부안의 맛과 멋을 담은 다채롭고 정성스러운 1인 밥상을 선보이며 풍성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했다. 또 친절 서비스 및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함께 진행해 부안



군 외식업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생명용지 7공구 첨단산업벨트 최적지”

부안군, 해상풍력 연계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세미나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4일 부안 소노벨 변신(1층 에메랄드 홀)에서 서남권 해상풍력 연계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세미나를 개최하고 새만금 7공구 일원을 RE100 기반 첨단산업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 마련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해상풍력을 연계한 RE100 국가산업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국에너지기술원 융합시스템 연구단 최종원 박사와 전북연구원 주축신산업팀장 이지훈 박사의 주제 발표와 함께 원광대학교 등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부안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산업부문의 RE100 이행 현황과 부문별 추진 과제, 제도적 한계와 대응 방안을 비롯해 전북형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향과 해상풍력 연계를 통한 에너지 자립 모델 구축 전략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어 정태중 한국 RE100 협의체 의장을 좌장으로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단장과 장대현 군산대학교 RS에너지신산업사업단 교수 김현조 주식회사 알이에너지 대표이사, 김동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사업기획팀장이 토론에 참여해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부안형 산업전환 모델 구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